

홈 > 뉴스 > 사설·칼럼 > 온누리

[온누리]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0호] 2014년 09월 28일 (일) 19:11:34

이종근 문화교육부장 ✉ jk7409@hanmail.net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2004년 처음 번역을 시작한 이후 10년만에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 완역, 90권을 간행했다. 이번 번역 사업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모한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의 지원 과제로 수행, 2004년 8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3년 동안 진행된 번역사업의 총 연구비는 약 10억5,000만 원으로, 결과보고서 평가 후 약 1억3,000여 만 원의 출판비를 지원받았다.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은 선조 34년(1601)부터 고종 29년(1892)까지, 17세기 초에서 19세기 말까지 약 300년 동안 변란, 역모, 천주교, 왕릉 방화 등에 관련된 중죄인들을 체포·심문한 기록이다. 심문 대상자는 신분상으로 양반에서 노비까지, 직역으로 관료와 상인 및 농민과 궁녀 등이 망라되어 있으며, 당시의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잘 드러나 있다. ‘추안급국안’을 통해 당대인들의 사회적 행동양식 및 사고방식을 복원할 수 있을 터이다.

‘추안급국안’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 다른 역사서에서 요약·압축된 사건이나 내용들을 심문과 진술 형태로 가감 없이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 사건의 이면에 존재하는 실체적 진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간관계, 특히 베일에 싸여 있던 궁중 내부의 갈등은 조선 후기 역사적 사건의 속살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준다. 또, 자료적 특성상 학제간 공동 연구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일례로, 역사학과 사회학, 국어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공동 연구로 중세의 지역사회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때문에 국역된 ‘추안급국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조선 후기 역사를 새롭게 정리할 수 있다. 번역을 계기로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에서 널리 활용, 'OSMU(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원작(source)이 다양한 분야나 장르에서 활용되면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구조)'로, '창구효과(Windows effect)'를 널리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란다./ 문화교육부장

©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